
이론적 연구의 응용화에 노력해야

고영근 ·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
(어학전문 국제학술지 「형태론」 편집 고문)

《새국어생활》이 창간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. 지난 20년 동안에 출간된 《새국어생활》을 보면 우리말의 발전은 물론, 우리말의 연구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. 지금 우리나라에는 《새국어생활》과 비슷한 성격의 어문 관련 정기 간행물이 몇 종류 있다. 한글학회에서 내는 《한글새소식》과 한국어문회에서 내는 《語文生活》이 그것이다. 둘 다 모두 월간이다. 전자는 한글 전용에다 주로 우리말과 우리글의 발전에 관련된 소품 형식의 글을 실는 것이 보통이고 후자는 한글과 한자가 국어의 두 날개라는 관점에서 국한문 혼용의 편집 방향을 취하고 있다. 두 단체가 지금까지와 같이 서로 견제하며 한글 전용론과 국한문 혼용론의 정책을 밀고 나가면 우리말의 발전을 다그칠 수 있는 두 축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.

올해 창간 20주년을 맞는 《새국어생활》은 계간이다. 이 책은 원래 1984년에 발족한 학술원의 임의 기구였던 국어연구소의 기관지 《국어생활》의 뒤를 이어 나왔다. 《새국어생활》과 비슷한 성격의 계간지로 북한에서 나오는 《문화어학습》이 있다. 이 책은 북한이 문화어 운동을 일으키던 1968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다. 이 책은 1950년대 후

반에 간행된 대중 상대의 어문 생활 월간지 《말과 글》을 복간한 셈이다. 사실 이 책의 간행으로 북한의 언어 생활이 개선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. 북한이 한자어 기원의 어려운 말을 순화하고 외래어를 순화한 이면에는 앞의 두 책이 크게 기여해 왔다.

위의 몇 가지 월간 및 계간 어문 정기 간행물을 비교하여 볼 때 현재의 《새국어생활》의 편집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우리말과 우리글의 발전에 관련된 글을 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. 나는 수 년 전에 북한의 《문법화학습》을 분석하여 《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지식의 응용화》(한국문화사, 2008)란 책자를 낸 일이 있다. 북한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우리말을 연구하여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언어·문자 생활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한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. 우리말 문법에 대한 전문적인 논문이 발표되면 그 필자가 직접 《문화어학습》에 기고하여 언어 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의 응용적 측면을 탐색하는 예를 많이 보았다.

지금 우리나라에는 일년에 우리말에 대한 연구가 수백 편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. 《새국어생활》 편집자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 생활의 개선과 우리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적을 가려 내어 당사자에게 응용적 측면을 드러내는 방향의 기고를 요청할 수 있다. 21세기는 매체의 통합이 확산되고 이론과 응용이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새겨 둘 필요가 있다.